

11. 신정론: 12가지 유형론

(1) 무신론: atheism, 신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명할 것도 없다.

Stendahl: “the only excuse for God is that he does not exist.”¹⁾

“Thus, a very widespread view is that the souls of the dead may be incorporated into animals and plants, depending on the souls’ different manners of life and death, and influenced by their clan and caste connections. This is the source of all conceptions regarding the transmigration of the soul.”²⁾

(2) 다신론: polytheism), 신이 여럿이라면, 악은 이들 사이의 불화로 설명될 수 있다.

“Belief in multiple gods pervaded the ancient world. Indeed, a growing body of evidence supports the view that the Israelite commitment to polytheism survived much longer than earlier scholars believed to be the case. The emergence of monotheism after an undetermined period of henotheism – the veneration of one deity while others are conceded to exist – was a gradual process.”³⁾

(3) 악마론: Satan, dualism, 악마가 있다면 악도 설명될 수 있다.

조로아스터교: “태초에 쌍둥이 영들이 자신의 본성을 사유와 말과 행동에서 보다 나은 영과 악한 영으로 각각 선택하였다. … 쌍둥이 중에서 악한 영은 가장 끔찍한 것들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가장 성스러운 영은 가장 확고한 하늘들의 옷을 입고, 스스로 의로움을 선택하였다.”⁴⁾

(4) 자유의지론: free-will theodicy, retribution theodicy, 악은 인간에서 기인한다.

“Nothing makes the mind a companion of cupidity, except its own will and free choice.” “God, then, will not be the cause of that movement; but what will be its cause? If you ask this, and I answer that I do not know, probably you will be saddened. And yet that would be a true answer. That which is nothing cannot be known.”⁵⁾

(5) 훈육론: educative theodicy, Irenaean theodicy, 악은 하나님의 교육방법이다.

악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교육학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인격과 영혼 형성의 교육적 목적을 위

1) Ronald M. Green, “Theodicy,” Mircea Eliade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4 (New York: MacMillan, 1987), 440에 재인용.

2) Max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63), 140.

3) James L. Crenshaw, *Defending God: Biblical Responses to the Problem of Evi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51.

4) Russel, *The Devil*, 106–107.

5) Augustine, *On Free Will*, book 1, 21, and book 2, xx54.

하여 허락된다. 대표적 사상가로 바울, 이레니우스, 존 힉 등이 있다.

(6) 내세론: resurrection, eschatological theodicy, recompense theodicy, 악은 내세에서 해결된다

현세의 고통과 죽음은 내세에서의 부활에 의해 교정될 것이다. 혹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얻는다. 특히 오리겐은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을 포함해서 악마까지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만유회복설(apocatastasis)이 성서의 네 곳에 근거를 가진다고 보았다: 고린도전서 15:26-28; 로마서 5:17, 11:36; 빌립보서 2장; 요한1서 4:8; 사도행전 3:21. 악마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만유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원수의 파괴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실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서 유래하는 악의적인 목적과 의지가 종말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그는 존재하기를 그친다는 의미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수와 죽음이 아니라는 뜻에서 파괴되는 것이다.⁶⁾

(7) 고난의 신비: theodicy deferred, mystery of suffering, mystery of theodicy, 악은 알 수 없는 신비다.

인간은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신비(의 전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전체 신비는 반드시 정의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고난의 신비론’ 혹은 ‘연기된 신정론’은 일부 예정론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정과는 차이가 있다.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인간의 정의와 다른 것으로, 인간이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강조한다. 반면 고난의 신비론은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정의를 인간이 알 수 없지만 내세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요컨대, 전자가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 다르다”고 본다면, 후자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 같지만, 내세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이다”고 본다.

(8) 대속론: communion theodicy, 고통은 신과 합일하는 방법이다.

그린(Green)은 “교제의 신정론(communion theodicy)”라고 부르며, 고난 자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 하나님과의 협력, 나아가 하나님과의 합일적 교제의 계기”가 된다고 보는 종교적 견해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함께 고통 받는(*com-passionate*) 하나님으로, 그는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고통당하고, 그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일 때 그는 가장 강렬하게 현존한다.”⁷⁾ 고통은 인간을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더 가깝게 교제하게 만든다.

6) Jeffrey Burton Russel, *Satan: The Early Christian Tradi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145 재인용.

7) Ronald M. Green, “Theodicy,” Mircea Eliade ed., *The Encyclopaedia of Religion*, vol. 14

(9) 분열인격론: split personality,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의 인격들이 공존한다.

용에 따르면, 삼위일체는 그 그림자를 배제한 철저하게 빛의 하나님, 남성적 하나님이다. 최근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은 사위일체(성부-성자-성령-성모)의 가능성을 연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여성적 하나님을 포함한 것이지 악한 하나님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위일체(성부-성자-성령-악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의 입장이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삼위일체의 상호순환 관계(perichoresis)를 동일하게 사위일체에도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악마적 하나님, 이것이 가능한가?

"In as much as Three (Trinity) is only one (however the main) aspect of the Deity, the remaining fourth principle is wiped out of existence by the *privatio boni* syllogism. But the Catholic Church was aware of the fact that the picture without opposites is not complete. It therefore admitted (at least tentatively) the existence of a feminine factor, within the precincts of the masculine Trinity (*Assumptio Beatae Virginis*). For good reasons the devil is still excluded, and even annihilated, by the *privatio boni*. … The Catholic Church has almost succeeded in creating a *quaternity without shadow*, but the devil is still outside."⁸⁾

(10) 예정론: predestination, human determinism, 하나님의 섭리가 악을 예정했다.

칼빈에 따르면, “인류라는 동일한 다수에서,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예정되고 어떤 이들은 파괴로 예정된다.”(3.21.1)⁹⁾ 이러한 예정은 이중적이다.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간에게 일어나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자신과 스스로 계약을 맺는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물은 평등한 조건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이는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예정되었다.”(3.21.5)¹⁰⁾

이러한 서로 다른 운명은 하나님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불평등성 자체가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불평등한 사랑을 언급한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말라기 1:2-3)(3.21.6)¹¹⁾

(11) 과정신정론(process theodicy), 악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형이상학적 조건이다.

(New York: MacMillan, 1987), 434.

8) H. L. Philp, *Jung and the Problem of Evil* (New York: Robert M. McBride Co., 1959), 219.

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921.

1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926.

1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929.

“사물들의 본질 그 중심에는 ‘청춘의 꿈’(the dream of youth)과 ‘비극의 결실’(the harvest of tragedy)이 항상 공존한다. 우주의 모험은 바로 그런 꿈에서 출발하지만,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결실로 거두어들인다. 이것이 바로 ‘열정’(Zest)과 ‘평화’(Peace)가 통합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다. 고난은 종국에는 조화들의 조화를 획득한다. 이러한 궁극적 사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과 함께 청춘과 비극의 통합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의미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 다양한 개별적 경우들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세계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득되어지는 것이다.¹²⁾ ”

(12) 무악론(無惡論),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선악이란 인간의 쾌락-고통의 심리적 감정에 기초하여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의 판단에 관련되는 것이다. “선악에 대한 지식이란 단지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 일 뿐이며, “우리 존재의 보존을 위해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선하거나 악하다고 부른다.”¹³⁾ 선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한 심리적 기재인 것이다. 요컨대, 선과 악은 “이성의 실재들”(*entia rationis*; entities of reason)이 아니라 “상상의 실재들”(*entia imaginationis*, entities of imagination)이다.¹⁴⁾

하나의 동일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혹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악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초상집의 조문객에게는 나쁘고, 청각을 잃은 사람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¹⁵⁾

12) A. N.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381; cf.『관념의 모험』 446.

13) Spinoza, *Ethics*, 233 (part 4, proposition 8; *Ethics*, part 4, proposition 8, demonstration).

14) Spinoza, *Ethics*, 111 (part 1, appendix).

15) Spinoza, *Ethics*, 227 (part 4, preface).